

## 회 의 록

<b>과 제 명</b>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				
<b>간담회 주제</b>	보리의 종합이용계획				
<b>회의 장소</b>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동관) 412호 세미나실 11시~13시				
<b>과제번호</b>		<b>과제책임자</b>	<b>이 철 호</b>	<b>회의일시</b>	2013. 9. 24.
<b>내부참석자명단</b>	이철호, 신동화, 김영수, 이숙중, 이민경, 김미경				
<b>외부참석자명단 (*다수일 경우 별도첨부)</b>	<b>성명</b>	위남량	<b>소속</b>	농협중앙회	
	<b>성명</b>	최재성	<b>소속</b>	식량과학원	
	<b>성명</b>	홍주식	<b>소속</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b>성명</b>	김경호	<b>소속</b>	CJ 제일제당	
	<b>성명</b>	김성수	<b>소속</b>	한국식품연구원	
	<b>성명</b>	박현진	<b>소속</b>	고려대학교	
	<b>성명</b>	박정복	<b>소속</b>	CJ 제일제당	
	<b>성명</b>	정유성	<b>소속</b>	CJ 제일제당	
<b>내 용</b>	<p>○ 전북대학교 김영수 교수의 “보리의 종합이용계획” 연구 발표 후, 내·외부 전문가들과 간담회 개최.</p> <p>○ 주 논 의 내용은, 국내산 보리의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과 본격적인 수입개방을 앞두고 저가의 외국산 보리와의 경쟁력 확보 대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음.</p> <p>○ 아래는 주 논의내용을 발췌한 것임</p> <p>(최재성)</p> <p>보리의 생산 증가는 보리 재배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증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생산이 늘려면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보리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 보리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과학계의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소비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소비를 늘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보리가 주곡으로 소비되는 시대는 지났고 잡곡으로 소비되고 있으므로 기능성 품종들이나 갈변을 늦추는 품종 등을 육종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보리는 종자보급에 문제가 있다. 농민들에게 충분한 종자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급종의 보급률은 약 25% 정도라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종자를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보리 종자 보급종을 충분히 생산해야 하지만 국립종자원을 비롯한 종자보급소에서 보급종 생산 여력이 너무 부족하다(현재 종자보급소 10개 정도). 이들에</p>				

대한 생산기반시설 및 인력 투자가 시급하다.

(위남량)

2012년 정부가 보리수매를 중단한 이후 보리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는 보리의 재고가 늘자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수매가격을 낮추고 수매 중단에 대한 예고를 해왔고 이에 의해 보리재배 농가들은 생산을 줄였다. 2012년 수매가 중단되자 보리의 생산량은 크게 줄었지만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생산의 증가는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보리의 안정적인 수요예측은 다음과 같다. (1) 주정용으로 소비되는 보리의 자급률은 10%대 이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주정용으로 국내산 보리를 사용 할 경우 주세를 감해주는 정책으로 저가 수입산 보리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5만 톤 정도는 안정적으로 소비가능하다고 본다. (2) 국내 제조 맥주에 사용되는 보리는 거의 수입산 이지만 공급가격을 3년간 동결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2만 3천 톤의 수요확보는 가능하다. (3) 동서식품의 경우 보리차 생산에 국내산 보리를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5천 톤의 수요가 확보된다. (4) 홍보 강화로 식용보리의 소비를 늘려 5만에서 10만 톤 정도 수요를 확보하면 약 20만 톤 정도의 수요가 창출된다. 이에 더해서 (5) 정부가 보리를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30만 톤의 보리가 필요하다. (6) 축산업계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료용 청보리 50만 톤에 대한 수요확보가 가능하다. 이 모두를 합하면 약 100만 톤의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된다. 보리의 증산을 위해 동계 밭작물 직불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보리의 집단재배 지역을 만들어 무이자 자금지원, 가격우대, 판매보장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홍주식)

현재 보리가격이 매우 높은데도 농민들이 보리를 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쌀 재배 후에 보리나 밀을 심을 수 있도록 보조가 필요하다. 즉, 쌀 재배 후 보리를 심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불금 형태의 보조는 WTO 제소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지방자치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내산 보리와 수입산 보리의 가격은 2.5-4배로 국산보리가 평균 3배 정도 높다. 현재로는 MMA 물량이 적지만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고 현재와 같이 국산보리의 가격이 높다면 가공용 보리의 수입산 사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캐나다 등에서는 보리의 가공적성을 높이는 연구도 하고 있다. 국내산 보리의 생산과 소비를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박현진)

수입개방을 앞두고 보리의 수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내 생산비를 낮추어 가격을 조정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국내산 보리 및 보리가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베타글루칸이나 GABA 등의 기능성 물질 함량을 높여 고품질화에 따른 고가격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도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김성수)

정부가 재고가 많아서 수매를 중단했다는데 국내산 보리가 부족해서 가공업체에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므로 식용은 국산으로 가공용은 수입산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리의 생산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얼마나 증산을 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대책 없는 증산은 가격폭락 등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김경호)

보리로 만든 가공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 질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가공제품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 져야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우리 밀 제품도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이지 않았다. 가격도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우리 밀 보다도 더 비싼 보리가공식품을 수용할 것 같지 않다.

(신동화)

현재 국내 보리의 생산량은 8~9만 톤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보리 생산을 증산해야 한다. 그러나 보리를 더 소비하고자 하여도 보리의 이용 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식미 감소(맛이 없고 가공적성이 떨어짐)와 가격 문제이다. 보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리 하나로만 사업하기에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알곡이나 잎, 보릿대 등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리의 제분방법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보리 자체를 통째로 먹는 방법에 대한 깊은 연구가 되어야 소비량이 증가하고 가공비 또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리재배 농민의 생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화를 통한 집단농업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리 알곡 뿐 아니라 부산물 까지 복합적 이용으로 이익 창출이 요구된다.

----- 끝 -----